

01 교회소식

은혜의 공간이 펼쳐지는 곳

해외 성도들이 권능의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권능의 기도로 농아 성도들의 귀가 열렸다는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위로부터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무수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어떤 중심일 때 영의 마음이 될까?

영의 마음을 이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두 가지 중심(中心)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본다.

04 간증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아들의 자폐증이 치료된 김준욱 집사와 관절 골절 치료를 치료받은 프랑스 질베트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01호 2015년 8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2000년 3월 이래 무안단물터를 방문한 국내외 무수한 순례객은 치료와 응답,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 돌아갔다. 큰 사진은 8월 6일 무안단물터를 방문한 해외 교역자와 성도들, 작은 사진은 단물 기념비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무안단물에 침수한 방문객들.

Power of God

“해외 농아 27명의 귀가 열려 이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지정훈 목사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

말레이시아, 태국, 페로제도, 덴마크에서 28명의 농아 성도가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인터넷 화상을 통해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며 아침 금식으로 수련회를 준비해 왔지요.

지난 8월 3일,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이어진 은사집회 시 강사 이재록 목사님께서 단에서 성도들의 질병 치유와 마음의 소원 응답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였습니다. 수화통역으로 기도받던 농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지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자가 '어흥!'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이상해!"라고 수화로 말했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27명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본국에서 당회장님의 화상 기도로 귀가 열렸는데, 이때 더 잘 듣게 된 성도들도 있지요.



선천성 농아인 레우 카 룩 형제는 다니엘철야 기도회 끝에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영상 기도를 받으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 이 전보다 더 크게 양쪽 귀에 소리가 들린다며 너무 행복해합니다. 숙 썩 크후 성도 또한 이제는 목소리까지 구분된다며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메이프린드 웨이헤 한센 성도는 찬양이 어떤 곡인지 분별되고 전철을 타면 전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정상인들은 농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회장님께서 농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요. 목자의 권능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농아가 성결의 복음을 알고 나오기를 기도하며, 농아들의 세계 교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 '만민 하계수련회'에서 해외 농아 성도들은 귀가 열리고 질병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다(지정훈 목사, 앞줄 맨 왼쪽).

무안단물터,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 등 권능의 역사 나타나

해외에서 온 교역자와 성도들이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충만한 영적 체험을 했다.

해외 27개국에서 '2015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성도 중, 650여 명이 8월 6일에 무안단물터를 찾았다. 이곳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구로 전남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짘물이 단물이 된 놀라운 권능의 현상이다.

이들은 무안만민교회에 도착한 후 영어, 러시아어, 불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로 통역되는 가운데 성전에서 무안단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기도회를 가졌다. 무안 단물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무안만민교회 앞바다가 보이는 동산에 올라 무안단물을 시음하고 하나님께서 펼쳐 주신 영의 세계, 하늘의 천사, 신비로운 빛 등을 체험했다(4면 참조).

태국 빠라파폰 사모는 "그동안 당뇨병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했는데, 무안단물을 마신 뒤 힘이 생겨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온 수리 분통 집사는 "무안단물을 두 눈에 뿌린 후 영안이 열려 천사를 보는 체험을 했어요."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했다.

이날 행사는 개개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무안단물에 침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스라엘 율로미 아브라모브 목사는 무안단물 침수를 통해 이명과 심한 다리 부종을 치료받았다. 그는 "무안단물에 침수할 때 귀에서 무언가 쭈욱 하고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이명증상이 사라졌습니다."라며 기뻐했다.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양다리 무릎 아래에 물이 차서 항상 물집이 있고, 피부색이 푸르스름한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이날 침수 후에는 다리의 부종이 가라앉고 물집도 없어졌으며, 발뒤꿈치의 압박감도 사라졌다. 더욱이 살갓이 계속 벗겨지면서 푸르스름한 보랏빛이 본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고 있다.

싱가포르 빨핀 띠알 성도는 "2년 전부터 가까이 있는 글씨도 희미하게 보여 안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침수한 뒤 더 이상 안경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안단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 마실 수 있게 된 성경 역사(출 15:25)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된다. 짘물이 단물로 변한 2000년 3월 이래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무안단물터는 성도들은 물론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손님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다. 이곳을 다녀간 무수한 방문객은 무안단물을 마시고 바르며, 침수함으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10~17)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곧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우면 그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든든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어떤 원수 마귀의 계계에도 흐트러짐 없이 단단히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곧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만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으며 원수 마귀 사단의 계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지요.

2.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14절 후반절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흉배란 가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도 의(義)로써 흉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의가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믿어 행함으로 순종할 때, 곧 마음을 할례해 죄악을 버리고 대신 진리로 채워 나갈 때 비로소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슴에 흉배를 붙인 군인과 같이 대적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담대히 나아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3.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새 사람을 입으라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죄악의 더러운 신을 벗고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서 3장 8-10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했지요.

그러므로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사람을 입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더러운 죄악의 신을 신은 사람을 찾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신속히 죄를 버리고 주 안에서 새사람이 돼야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는 전쟁 때 적의 칼이나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무기입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아무리 갑옷을 단단히 입은 용맹한 장수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지요. 여기서 화전이란,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말합니다. 이 화살을 맞으면 갑옷을 입었다 해도 큰 화를 당하지요. 이처럼 사단이 불같은 시험을 해 올 때에 우리를 방어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히 11:6)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시 37:4).

5.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투구란 전쟁할 때에 갑옷과 함께 쓰던 쇠모자로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철모를 쓰지 않으면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근신하며 항상 진리 안에서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하지요(빌 2:12).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 다해 충성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면 원수 마귀 사단이 감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시험이 와도 오히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흉배나 투구, 방패는 모두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검은 바로 적을 공격하는 무기이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말씀이 무장돼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올 때에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 장수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양식 삼느냐에 따라 영적인 힘과 능력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곧 영적으로 말씀을 무장한 만큼 위로부터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어두움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6.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장이 전신갑주의 재료라면 불같은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입었다 해도 몸에 딱 맞지 않으므로 조금만 흔들어도 벗겨지지요. 그러나 불같은 기도를 하면 전신갑주를 몸에 딱 맞게 든든히 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무장과 함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불같은 기도로 무장해야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장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가 지킴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한 주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죄로 심히 물들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눅 18:8).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무장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해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란 온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를 뜻하는 말로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전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1.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에베소서 6장 14절 전반절에 “그러나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허리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몸을 지탱해 주는 주축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힘의 근원이 됩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면 그 띠가 허리를 든든히 받쳐 주고 붙잡아 주므로 모든 행동이나 힘을 쓰는 일을 하는 데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송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다녀오실 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영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중심'(中心)의 척도

사람마다 부모의 기를 타고 태어나 성장하면서 보고 들으며 가르침 받는 과정에서 자기 느낌 속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스스로 잘못 키워온 분야가 많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자기 유익을 좇으며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려면 자신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을 주장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진리로 채워야 한다. 과연 자신이 영의 마음을 이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없나다."
고백할 수 있는 중심인가?

'나라는 자체가 진리 안에서 철저히 죽어지면 내 유익을 구할 리 없고 다른 상대와 비교해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도 없다. 내가 살아 있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며, 판단 정죄하고 감정을 품는 것이다. 설령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기대한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내가 없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없으니 낙심하거나 실망할 일도 없다.



사람은 자기 의가 굳어지면서 틀을 만들게 되는데, 틀이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굳어진 것이다. 자기 의와 틀은 진리에 비춰 보면 대부분 옳지 않다. 이는 상대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비진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 중에서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자기 의와 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비진리를 버렸고,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안다는 것으로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라고 정립해

놓은 것이 굳어져 '자기 틀'이 돼 이 틀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확고한 목표가 하나의 틀로 세워져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가 강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이 하나 돼 돕는 것도 아니기에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힘들게 따라가게 된다.

반면에 일을 주도해 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믿음이 작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 의와 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과 덕, 긍휼의 마음을 가져 자신의 틀 가운데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선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냉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다.

둘째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지기를 원하나다."
고백할 수 있는 중심인가?

진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 틀로 인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자신은 성령의 음성과 인도와 주관을 잘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 속에 담긴 진리의 지식을 자신의 뜻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지, 때에 적합한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녕 자신의 틀과 의가 없고 영의 마음을 일군 사람은 그 순간 정확한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뭔가를 크게 이루려 하는 자기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참으로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나라를 위한 열정은 있되 자기 욕심은 없다. 정녕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 등의 마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기다릴 줄도 안다.

또한 자신이 많이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 이뤄 놓은 일을 설령 하나님께서 무로 돌리라 하셔도 그분의 뜻만 좇기를 원하기에 서운함이나 미련 없이 즉각 그 뜻에 따를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고 합당해 보여도 만의 하나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어린 소자가 말을 한다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상식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런 이유나 변명을 대지 않고 그대로 순복한다.

정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의 사람은 자신의 틀과 의로 어떤 것을 정해 놓고 바라보지 않는다.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주님이시라면, 목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를 먼저 살핀다. 그래서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빨리, 크게 이루는 것도 중요하되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덕과 화평으로 다스려 나간다. 모든 것을 상대의 유익에 맞춰 생각하니 자신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를 억압하거나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상대가 잘못해 자신에게 해가 왔다 할지라도 그를 탓하기 보다는 긍휼한 마음이 앞서고 그러한 상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이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이 속이는 것을 안다 해도 잠잠히 속아 줄 줄도 안다. 그 사람 하나로 인해 크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일은 없기에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기를 원하기에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간다. 또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에 조금해하지 않으며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안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SEPTEMBER
2015
08.30~09.05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사랑장 19-20
- 십자가의 도 1-6
- 심고 거두는 법칙 1-4
- 전도 1-2
- 죽은 자를 위한 세례 1
- 천국 1-3
- 위로부터 난 지혜 7-9
- 십계명 1
- 요한계시록 강해 26-30
- 온전한 심일조와 환물 5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GCN TV설교

- 변화의 힘 (이수진 목사)
- 천은과 같은 입술 (이미영 목사)
- 빛의 열매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3 (이희선 목사)
- 옫기 강해 18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8 (정구영 목사)
-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정명호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9
- 창조와 과학 14
- 내 마음의 찬양 17
- 옛날 옛적에 7
- English 13
- 즐거운 요리 19
- 모두 드려요 34

해외성회 및 교육

- 인도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5
- 회상 (시즌2) 2

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

2006년, 사랑스런 아들 민성이 태어났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적 표현과 행동이 좀 느리게 성장하는 듯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세 되던 해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어느 날 교사로부터 아이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으니 소아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지요.

저희 부부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며 근심 속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와 전문가들의 소견을 통해 아이의 상태는 언어 지연, 분리 불안, 양육자 혼동, 애정 결핍, 과잉 행동, 상호 작용이 어려운 상태임이 발견됐고,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2년여 동안 치료 수업 과정을 밟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결국 민성은 2010년, 5세가 되던 해에 자폐증으로 정신지체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 제대 이후 생긴 아토피성 피부염을 무안단물에 침수한 후 치료받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구원의 확신 속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뒤 골프나 검도 등 사고 모임을 가지면서 술, 담배는 물론 주일성수를 하지 않을 때가 다반사였지요. 아내는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저의 잦은 출장으로 다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아들이 자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더욱이 자폐증은 부모의 죄로부터 오며 부모가 죄를 버리고 성결 돼야만 치료될 수 있다는 설교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들의 자폐증을 치료받았습니다!”



김준욱 집사 (39세, 2대대 12교구)
사랑하는 아내 이래은 집사와 아들 민성 형제와 함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교회가 가깝고 당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택 근처로 이사했고, 직장도 믿음의 기업인 (주) 라임금융서비스에서 근무하며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했지요. 아내는 매주 아들의 치료와 변화를 믿고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회복해 가니 화목한 가정이 됐고, 아이의 증세도 점진적으로 호전돼 특히 상호 작용에 대한 부분이 향상돼 아이와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당회장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명을 사모하던 중 남·여선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과 가족 만남을 통해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에 입단해 충만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이의 상태도 더욱 호전돼 만민선교원을 거쳐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진학 후 받은 자폐증상 검사에서는 언어적 표현 능력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정상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아동주일학교 예능부 찬양팀 활동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성의 치료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도권기공업고등학교 에너지정보통신과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업할 때 함께 일한 업체들로부터 업무 제의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심은, 사랑하는 양 떼를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목자 당회장님의 사랑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끝없이 역사하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질베트 성도 (61세, 프랑스)

“이제는 무릎이 잘 구부러지고 걷고 뛸 수도 있어요”

프랑스 공항에서 근무하는 저는 6시간을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종종 아팠습니다.

3년 전부터는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아프더니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근무를 시작한 지 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심한 통증이 밀려와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파스를 붙이고 호전되기만을 바라며 나름대로 요가와 스트레칭, 달리기 등을 하며 건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는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랐지요.

급기야 올해 5월에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관절 골절 돌출증’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 수술을 하지 못하고 무릎에 보호대를 착용하며 자연 치유되기만을 바랐지요. 예전에 유산으로 인해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병원생활을

했던 터라 병원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오른쪽 무릎을 제대로 구부러지도 못하고, 부은 무릎 때문에 몸에 딱 맞는 바지도 입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었고, 앉을 때에는 그 다리를 쭉 펴고 있어야만 했지요.

제 마음은 날로 가난해졌습니다. 3년간 동료 자넷이 전해 준 성령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에 마음 문이 열렸지요. 이후 만민중앙교회 성도로 등록해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8월 3일, 수련회 첫날 교육에 이어진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목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구부러졌으며, 뛰거나 오래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요. 할렐루야!

8월 6일,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무안단물터에서는 태양 주위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폭발하는 것처럼 찬란한 빛을 보았고 큰 사람의 형상 뒤로 많은 사람이 손잡고 따라가는 것을 보는 신기한 체험도 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영적 체험으로 충만케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암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민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921 3층 ☎051)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43-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윗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호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석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8163-153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409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